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5번 재판 끝 단죄

대법원 공모 인정 징역 10~15년 확정

지난 2016년 5월 21일(토요일) 오후,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 A씨는 육지에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선착장 앞 식당을 찾았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식당 주인 박모(당시 49)씨는 학부모 모임 등에서 얼굴을 봤던 여교사 A씨를 반갑게 맞이했고, 몸에 좋은 담근 술이라며 여교사에게 술을 권하기 시작했다.

여교사는 다음날 섬 여행을 계획했던 터라 술을 계속 거절했지만, 박씨와 일행들은 집요하게 담근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 결국 여교사는 10잔 넘는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

여교사가 쓰러지자 식당에서는 담요를 덮어주는 등 행기는 모습을 보였던 식당

주인 박씨와 이모(당시 34)씨, 옆 식당 주인 김모(당시 38)씨 등 3명은 2km 떨어진 관사로 데려가 자정을 전후로 여교사를 각각 성폭행했다.

이들은 자정 전 1차 범행에서 여교사가 강하게 저항하자, 자정 이후 범행을 다시 시도해 잠든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했다. 당시 범행과정에서 이씨는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당시 관사는 교사들이 주말을 맞아 모두 육지로 나가는 바람에 텅 비어 있었다.

22일 새벽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몸에 이상을 감지하고 즉시 경찰 112종합상황실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이불과 옷 등을 수거했고, 피해 여교사는 오전 첫배로 육지 병원으로 가 증거 채취에 협조했다.

경찰은 성범죄 전담 수사인력을 섬에 급파해 마을 CCTV 화면 등을 통해 박씨 등 3명을 인건했다.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2007년 대전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 혼자 잡든 관사를 향해 일행 중 한 명이 가는 것을 보고 위협하니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전 공모를 인정하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와 이씨, 박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통화내역과 CCTV에 찍힌 이동 정황 등을 토대로 사건 당일 자정 이후 2차 범행 당시엔 공모를 인정한 반면 자정 전 최초 범행은 공모 정황

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지난해 4월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가 교사를 성폭행한 범죄에 비해 형이 너무 낮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다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들이 수시로 통화를 하며 범행 장소와 각자 주거지로 이동한 정황을 토대로 공모 관계를 인정, 징역 15년, 12년,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조직 동원 선거운동’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집유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70)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시장은 2015년 4월에 측근들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한 후 14차례에 걸쳐 야유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산악회 야유회에서 주민들에게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일부 주민은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부행위 혐의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승진 대가 뇌물수수’ 김철주 무안군수 징역 2년6개월

공무원 승진인사를 발미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61) 무안군수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

를 부주는 대가로 업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선출직 군수로 더욱 정렴하게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방범창 달고 관사 300곳 모두 CCTV 설치 긴급상황 알릴 스마트워치도 희망자에 지급

섬 근무환경 어떻게 달라졌나

사건 발생부터 단죄에 걸린 시간은 약 2년. 지난 2016년 6월 당국이 여교사 등 도서벽지 근무자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그동안 제대로 이뤄졌을까. 전남도교육청의 설명대로라면 대책 이행률은 100%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22일 ▲관사 출입문 자동잠금장치로 개선 ▲관사 방범창 설치 ▲관사주변 CCTV설치 ▲여교사 관사(방) 비상벨 설치 등을 빼놓아 한 ‘도서벽지 근무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남교육청은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10일 기준, 전남 섬지역 관사 503곳 전체에 출입문 안전장치(자동잠금)가 설치됐고 방범창 역시 503곳 전체에 시공됐다고 밝혔다.

섬지역 관사를 비추는 CCTV의 경우 대상 관사 300곳에 모두 설치됐다. 별을 누

르면 인근의 또 다른 관사, 경찰관서 등에서 자동으로 위급 상황이 전파되는 비상벨 역시 381개 관사(방 기준)에 설치됐다. 스마트워치의 경우 대상 여교사 330명 가운데 착용 희망자인 152명에게 각각 지급됐다. 착용자 절반 수준인 78명은 보관 불편, 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수령했다가 반납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스마트워치는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에 신고됨과 동시에 담당경찰관 등 지정 3인에게 긴급상황을 알리는 메시지가 전송되는 시계와 유사한 전자장치다.

도교육청은 여성 교원의 섬지역 배치를 지양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현하지는 못했다. 도서지역 근무에 따른 가산점을 받으려고 일부 여교사가 지원한다는 점, 신규 임용 교원의 남·녀 비율이 3대7 정도로 여교사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인 점 등이 작용했다. 현재 여교사 홀로 거주하는 전남의 섬지역 관사는 총 267곳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하도급 선정 영향력 행사 목포시의원 검찰 송치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관리행위방해)로 목포시의원 A(6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업무대행사 대표 B(58)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해당 하도급 업체가 공사 업체 명단에 등록돼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어르신들 “축제는 즐거워” 제13회 광주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축제가 10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어르신들이 응원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법원 “수사 중인 조폭에 성접대 받은 경찰관 징계 정당”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A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경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A경위는 2015년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수사 중이던 조직폭력배 B씨 사건 관련 정탁을 받고 술값과 2차 성매매 비용으로 195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경찰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정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과 당시 술자리 성격과 술값 등에 비추면 때 단순한 사교적 의례나 호의 차원에 불과한 자

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경찰 조직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화가 꿈꾸던 30대 골목길 벽화 훼손 이유... “너무 잘 그려 질투”

○...화가들 꿈꾸던 30대 남성이 ‘너무 잘 그려져 질투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자주 다니던 골목길의 벽화를 훼손해 경찰서행.

○...1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3)씨는 지난해 20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시 동구 불로동 한 건물 외벽에 그려진 사진촬영용 ‘천사 날개’ 벽화(가로

5m·높이 5m·제작비 400만원)에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현장에 버려져 있던 스프레이 페인트 용기에서 지문을 채취해 이씨를 붙잡았는데,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잘 그려진 벽화를 보니 순간 질투가 났다”고 선처를 호소. 【김홍희기자 kimhy@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원룸매매

◎ 산정공원 바로 앞 (코너) 주인집 거주

1층 상가 (2개)
2층~3층 (원룸 12개)
4층 (최고급 주택)

월수익 550만

◆매가 : 9억 5천만◆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매가 8억3천
- ② 월곡동 월곡시장 2분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매매가 8억5천만
- ③ 전대정문 2분 (원, 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5천만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서구 매월동 (정세상장) 토 3,302평 건 3,955평 ▶감평가 2억70억 → 최저가 2억70억	4) 서구 금호동 (7층 중 7층상가) 100평상가(대단지아파트 위주)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2) 화순 도곡면 (무인빌)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7(월수익 5,000만 예상) ▶감평가 39억 → 최저가 13억8천	5) 삼우지구 세정아울렛 (29평) 감평가 3억 → 최저가 3억
3) 광산구 신창동 (월룸빌딩) 토 55평, 건 120평 광주주건대 2분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 2억6천7백	6) 효천지구 (1층 상가) 감평가 1억4천4백 → 최저가 8억
4) 담양군 삼대리 (무인빌) 토 3319평 건 750평 객실327(월수익 4,500만 예상) ▶감평가 39억 → 최저가 13억5천	7)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4억7천
	8) 삼우지구 (12층중 8층상가) 감평가 8억7천 → 최저가 8억7천
	9) 광산구 월계동 (호반아파트상가)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10) 동구 충장로 (3층 상가빌딩) 감평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11) 군산시 오식동 (4층 상가) 토 130평 건 305평 군산 신업단지 내위치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A.P.T	주택	토지.기타
1) 서구 차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평) 감평가 29억2천 → 최저가 19억2천	6) 북구 중흥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 17평 감평가 9억 → 최저가 6억2천	10) 남구 월산동 (공장 토 3평 건 33평)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1억4천
2) 서구 내빙동 내빙주공(미트)아파트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	7) 담양군 용봉동 주택 토지 67평 건물 37평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4억2천	11) 남구 월산동 (공장 토 3평 건 33평)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1억4천
3) 서구 금호동 문암영리(미트)아파트 감평가 29억2천 → 최저가 19억2천	8) 나주시 금천면 주택 토지 144평 건물 45평 감평가 1억2천 → 최저가 7천7백	12) 남구 월산동 (공장 토 3평 건 33평)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1억4천
4) 서구 동산동 천마로(미트)아파트 (2평) 감평가 29억2천 → 최저가 19억2천	9) 나주시 금천면 주택 토지 144평 건물 45평 감평가 1억2천 → 최저가 7천7백	13) 남구 월산동 (공장 토 3평 건 33평)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1억4천
5) 광산구 소촌동 스윗홈(미트)아파트 감평가 1억2천 → 최저가 7천7백	10) 남구 월산동 (공장 토 3평 건 33평)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1억4천	14) 남구 월산동 (공장 토 3평 건 33평)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1억4천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4월초 개강)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③ 무료반운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튜디오)

직원구함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